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한국사찰음식체험관 법사 여일스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9월7일 강동구보건소에 전달할 사찰간식 도시락을 포장하고 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9월 7일 강동구 보건소에 사찰간식 도시락 250인분을 전달했다. 사진은 강동구 보건소에 전달된 사찰간식 도시락 앞에서 문화사업단과 강동구 보건소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단장 원경스님이 오은진 강동구 보건소 주임에게 도시락을 전달한다.


사찰음식체험관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이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다.

“방역에 지친 그대, 사찰간식 먹고 힘내요”

문화사업단, 사찰간식 도시락 나눔 진행

글=신성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병원 · 보건소 · 노숙인 단체에
2천5백인분 간식 도시락 전달
과일과 호두강정 등으로 구성
1주일 전에 준비… 정성 ‘듬뿍’

9월7일 강동구 보건소에 전달
“모두 힘든 시기 찾아줘 감사”

“여기에 오렌지가 빠졌네요. 과일 4종은 빠짐없이 채워져야 해요.”

“오미자차 수량은 빠짐없이 챙겼나요.”

9월 7일 오전 10시 서울 안국동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 이하 문화사업단) 한국사찰음식체험관 조리장은 분주했다. 조리 담당 직원부터 자원봉사자들은 과일을 썰고 도시락에 담아내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들이 만든 도시락은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로 피로가 누적된 의료 인력과 방역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사찰 간식들이었다.

사찰 간식 도시락은 과일 4종(사과 · 오렌지 · 포도 · 방울토마토)과 호두강정, 오미자차로 구성됐다. 호두강정의 경우 지난해 문화사업단에서 진행했던 사찰음식 도시락 나눔 행사에서 의료진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제작에 손이 많이 가서 문화사업단에서 일주일 전부터 준비에 들어갔다.

사찰음식 · 간식 도시락 나눔 행사는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이후 문화사업단이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이다. 지난해에는 의료인, 방역관계자, 소외계층 등 1만 6000명에게 도시락과 간식이 전달됐다. 또한, 사찰음식 특화 사찰 등과 연계해 지역 병원과 소방서, 보건소 등에 나눔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으며, 이는 올해에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사연따라 찾아가는 사찰음식 온라인 수기 모집’ 도 인기다. 해당 사업은 준비한 수량이 거의 소진될 만큼 많은 사연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문화사업단은 사찰음식 도시락 및 간식 수량을 늘려 더 많은 이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했다.

이번 일선 병원과 보건소 등을 위한 사찰간식 도시락 나눔 행사도 문화사업단의 사회 공익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9월 3일에는 서울 서남병원에 600개의 사찰간식 도시락이 전달됐으며, 7일 강동구 보건소에 250개의 사찰간식 도시락이 전해졌다. 9일에는 영등포구 보건소와 종로구 보건소에 각각 300개, 215개의 사찰간식 도시락이 배포됐다.

이번 사찰간식 도시락은 코로나19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에게도 전달됐다. 불교계 노숙인 지원단체인 (사)다나를 통해 도시락 600개가 전해졌으며, 노숙인들의 도시락에는 과일 대신 떡과 양갱 등 한 끼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내용물로 구성됐다.

양진수 한국사찰음식체험관 운영팀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의료 · 방역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 방역 관계자들이 사찰 간식을 드시며 조금이나마 피로를 푸시라고 과일을 위주로 한 도시락을 준비했다”면서 “병원과 보건소, 노숙인 지원단체 등 총 6곳에 2465인분의 도시락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호두강정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가장 반응이 좋다. 단장 원경 스님께서 아직 날씨가 더우니 시원한 음료를 준비할 것을 제안해 청량감 있는 오미자차도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전달된 사찰간식 도시락 구성품. 상큼한 과일 4종과 호응이 좋았던 호두강정, 오미자차로 구성됐다.

최소영 한국사찰음식체험관 행정관은 “ ‘앉아서 느긋하게 식사를 할 시간도 많지 않다’ 는 것이 일선 관계자들의 전언이었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영양소도 섭취할 수 있는 과일 중심으로 도시락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최근 의료 · 방역 관계자들에 대한 관심이 준 것이 사실”이라며 “그래서 문화사업단은 병원, 보건소 의료진 · 방역 관계자와 일선 행정직, 청소노동자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모두를 챙기려고 노력한다. 도시락 수량도 항상 넉넉하게 맞춰서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사찰 간식 도시락을 준비하는 조리팀과 자원봉사자들은 일선 의료진들이 간식을 먹고 잠시 고단함을 잊기를 바라며 정성을 다했다.

한국사찰음식체험관 법사 여일 스님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유행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특히 의료진들이 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 “상큼한 과일과 시원한 오미자차를 드시며 잠시나마 고됨을 잊고 웃음을 지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기원했다.

송남춘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간사는 “정성으로 준비한 사찰간식 도시락을 먹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해주셨으면 한다”면서 “하루 빨리 세상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포장작업이 완료된 사찰간식 도시락들은 강동구 보건소에 전해졌다. 도시락을 전달받은 방역 관계자들은 불교계의 자비나눔 활동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오은진 강동구 보건소 보건의료과 주임은 “코로나19로 많은 국민과 의료진, 방역관계자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마음 내주신 도시락을 먹고 조금 더 힘을 내도록 하겠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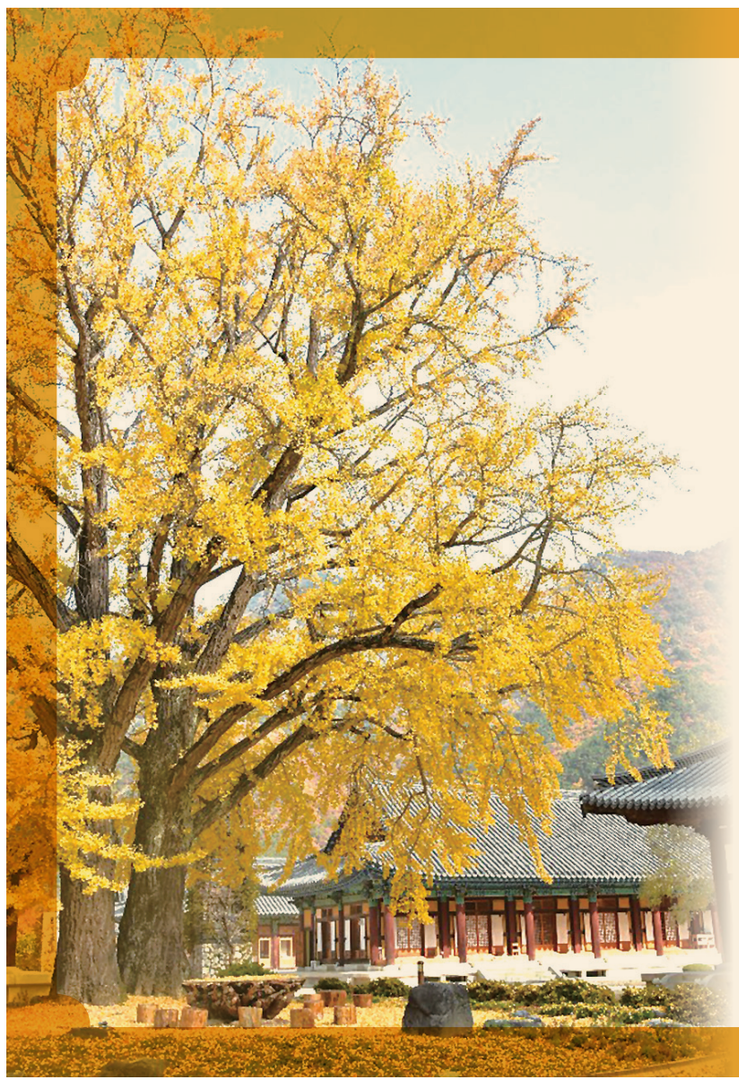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방역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언제든 사찰음식 등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원경 스님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언제든지 편한 시간에 도시락을 드실 수 있게 음식이 아닌 간식으로 준비했다. 더 필요한 것을 말씀주시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산사는 종교를 떠나 지치고 힘든 국민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항상 문을 열고 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우울한 감정을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으로 치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원경 스님은 문화사업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실제 문화사업단은 코로나19 발병 직후인 지난해부터 의료인과 방역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토닥토닥 템플스테이’ 와 소상공인 · 문화예술인을 위한 ‘쓰담쓰담 템플스테이’ 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올해 6월부터 연말까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들 대상으로 1박2일 템플스테이의 참가비 30%를 할인하는 인센티브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원경 스님은 “내년에 코로나19의 극복이 이뤄져도 일상으로의 회복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국민들의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사회 공헌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나눔 사업을 내년에도 확대 ·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문사승가대학 동문들께 알립니다

제50차 운문사승가대학 총동문회 취소 안내

귀의삼보 하옵고,
소중한 추억이 서린 우리들의 운문도량에서 올해는 꼭 선·후배스님들을 모시고 작년에 하지 못한 총동문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끝나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선·후배스님들을 가을 향 가득한 도량으로 초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의 종식이 아닌 위드 코로나를 맞이하여야 할 거 같습니다. 올해도 아쉽게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운문인들은
항상 함께 하고 있으니 운문도량에 함께할 그날을 기약하며 선·후배스님들 모두 건강하게 각자의 자리를 빛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학금 신청은 운문사로, 동문회비 납부 관련은 동문회 재무스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임 총동문회 회장 **지호스님** (010-8997-3992)
- 신임 총동문회 총무 **대훈스님** (010-3105-9878)
- 신임 총동문회 재무 **지산스님** (010-3813-3526)
- 동문회 계좌번호 : 농협 351-0819-3700-43 (운문사)
- 동 문 회 비 관련 문의 : 총동문회 재무 지산스님 (010-3813-3526)
- 장학금신청 관련 문의 : 운문사 종무소 (054-372-8800, 054-370-7100)

불기2565(2021)년 9월 15일

대한불교조계종 운문사승가대학 총동문회장 운아 합장